

여전히 버림받은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21:42

우리는 이제 곧 기독교 세계가 거의 이천 년 전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메시아이자 약속의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설가들은 인류 역사상 지난 수십 년처럼 수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기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과 비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한 인격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미 세상을 뒤흔들었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인류의 행로와 전망을 변화시킬 운명입니다.

거부당한 예수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요한복음 1:11).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잔혹하고 이른 죽음을 초래한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민족의 많은 평민들은 그의 메시지에 기뻐했으며, 십자가 처형 며칠 전에는 열렬히 그를 왕으로 환영했습니다(요한복음 12:12-15).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기하여 미워했고, 결국 그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을 성사시켰습니다(요한복음 15:25).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가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들조차 그 의미를 감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예수를 죽이려는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그 비유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심고는 먼 나라로 떠나면서 포도원 관리인들에게 맡긴 이야기였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집주인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으나, 관리 맡긴 농부들이 그 중 일부를 죽이고 나머지는 학대하였다. 결국 집주인은 농부들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며 친아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아들도 죽여 버렸다. 마태복음 21:33-46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여호와이셨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그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집주인을 대표하여 먼저 보내진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마태복음 23:37). 이제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 계획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 적용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관한 예언을 인용하셨다: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님의 하신 일이라, 보기에 놀라운 일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을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으스러뜨릴 것이다." 마태복음 21:42-44; 시편 118:22,23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아름다움도 위엄도 없었으니, 우리를 끌어당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도다." (이사야 53:2).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해를 끼치지 않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과는 분리되셨다." (히브리서 7:26). 그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셨으며 선을 행하며 다니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를 책망하셨고,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를 칭찬하셨다. 사도행전 10:38; 마태복음 11:5; 누가복음 18:9-14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자에게서 찾던 자질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처럼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을 메시아를 원했다. 그들은 마치 꼭두각시 왕처럼 통제할 수 있는 자, 정복군대를 일으켜 지휘할 자격을 갖춘 장군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만족할 만한 자를 갈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갈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의 비유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초의 시작점이었고, 나머지 기초는 이 돌에 맞춰 정렬되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성전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 모퉁이의 머릿돌 "이셨습니다. 즉, 전체 구조를 하나로 묶는 최상단의 돌이셨습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물의 종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 그를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높이 올리심

예수님의 생애를 둘러싼 모든 비극적 경험은 건축자들이 그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 뒤에 하늘 영광으로 높이 올리심은,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였다. 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건축 방식으로 비참하게 왜곡하고 뒤틀어버린 옛 유대인의 집의 머리가 아니라, 새로운 집, 영적인 집의 머리가 되실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 집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먼저

마련되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전체 구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실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귀하게 하신 이 살아 계신 돌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에, 너희도 살아 있는 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리라.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으리니, 선택되고 귀한 모퉁잇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이 돌이 귀한 돌이 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예정된 바가 됨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사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급률을 입지

못하였으나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4-10

새 나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그분은 덧붙이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서 그 열매를 맷을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1:43).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에서 그는 돌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지기 시작한 새 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교회]는 ...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9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왕족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5,6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경우에 대한 약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온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니, 온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 약속은 원래

이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왕국은 그들에게서 빼앗겼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민족의 일원이 되는 자들을 향한 약속들은 특히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도 그중 하나이다. 디모데후서 2:12

오순절 이후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 왕국(계시록 20:6)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일이었다. 비록 기독교 세계 대부분에서 이 사실이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사도들과 초기 교회는 이를 이해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긴 밤과 울음과 죽음을 끝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이 거의 지나가고 날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서 13:11,12

이는 메시아 왕국 구조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높이 올리우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이루어질 날입니다. 참으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날입니다. 이는 그의 행하심이며, "우리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1:42). 축복의 왕국 날은 인간이 상상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의의 태양이" 떠오르며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오실 때 나타날 광명과 기쁨의 날입니다. 말라기 4:2

잃어버린 비전

사도들이 잠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국에 대한 소망의 비전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점차 발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속 권력과 연합함으로써 세워질 것이라는 관점이었다. 자칭 기독교 세계는 이제 그 시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알고 있다. 후에 성경에 언급된 왕국이 단지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미치는 의로운 영향력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이론이 등장했다. 온 세상이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면 왕국이 완전히 임할 것이라고 주장된다.

세계를 개종시키기 위한 거대하고 광범위한 선교 활동이, 특히 지난 150년 동안 왕국 약속의 성취를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 관점이 교회-국가 이론만큼 실망스러운 것임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야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故) 찰스 W. 랜슨 박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가 수십 년 전에 작성하여 『크리스천 센추리』 잡지에 게재한 다음 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 이해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을 얻기 전까지는 현대 선교 실천의 가장 난해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설교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독교적 희망의 의미는 무엇인가—역사 안에서의 의미와 역사 너머에서의 의미는?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의 선교적 소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대 선교의 위기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인식, 혹은 적어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제시해 온 답들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종말론[인류의 운명]에 대한 이 부활한 관심을 단순히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진 실용적 문제들로부터의 도피 형태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은 역사의 재앙적 본질을 인식하고 기독교 계시와 기독교적

희망의 충만함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새로운 현실주의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기독교 선교라는 역사적 사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맡기려는 시도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현재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에서 실패한 것들—우리가 무시한 통찰들, 적용할 힘이나 용기가 없었던 확신들—을 회개하며 재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분명히 힘든 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선교 운동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부활과 갱신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깊은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창한 선교 전략도, 허세 가득한 중앙 계획도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판자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우리의 사명과 행군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겸손한 귀환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좌절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역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명의 평신도가 한 것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출신 신학박사이자 국제선교협의회 총무이며 기독교 선교 사역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널리 쓴 저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주의의 선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그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간절히 권고했다. 랜슨 박사의 관찰이 수십 년 전에도 사실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 7:6-9). 이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타락한 인간의 전통과 사상들이 점점 더 교회 체계와 그 가르침을 이끌어가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인간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전통은 분명히 이를 행했으며, 비록 그 사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비난받지만 종교적 사고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의 사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률 제정에 시민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오도하는 전통 중 하나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잘못된 개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원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신성한 권능이 지상의 통치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생각에 거의 또는 전혀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한 사람으로 칭송하지만, 그가 지상의 왕이 되어 "모든 민족 위에 권능을 행사하며"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6,27; 시편 2:6-10; 고린도전서 15:22-25

머리들이신 예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내렸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식대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모든 기독교 세계는 인간이 구상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애도할 것이다. 그들의 집이 무너져 내릴 때, 약속된 지상의 왕이시며 그가 세워 오신 새 영적 집의 머릿돌이신 예수께서 곧 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참으로 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다가오는 왕국의 징조를 바라보며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시편 118:24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분의 계획은 영광스럽게 성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약속된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창세기 22:18; 사도행전 3:25).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점점 더 밝아지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지식과 확신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 날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가득할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박국 2:14

이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곧 모퉁잇돌(마태복음 16:18, 21:27)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본보기와 구주와 왕으로 삼는 모든 이의 눈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